

# “남북 이산가족 매년 3800명 사망”

현대경제研 “이산상봉 조속 재개해야”

1년에 사망하는 남북 이산가족이 수천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이산가족 상봉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 흥순자 수석연구위원이 12일 내놓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더는 시간이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1985~2012년 4386건 성사됐으며 2만

1891명이 만남에 성공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성화한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꾸준한 증가세였지만 2009~2010년에는 2차례에 걸쳐 1770여명만 성사됐고 2008년과 2011~2012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1990년 시작된 민간 차원의 상봉은 1742건, 3387명이 성사됐다. 제3국에서의 상봉이 98%에 달한다.

1988년부터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을 시작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8808명으로, 이중 현재 7만3461명(57%)만 생존하고 있고 5만5347명(43%)은 사망했다. 생존자 모두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이 전체의 80.5%에 달한다.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간 약 3800명에 달하며, 사망률과 상봉률을 격차로 인해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간 2000명

에 이른다.

연구진은 “현재의 이산가족은 사망률과 평균 기대여명으로 볼 때 20~24년 후면 모두 사망하고 특히 70세 이상의 대부분은 10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들이 생애 한 번이라도 이산가족을 만나려면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특히 70세 이상은 10년간 매년 60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연합뉴스

# “민주주의 전당 반드시 광주 건립을”

강운태 시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요청

강운태 광주시장은 12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방문해 정성현 이사장에게 한국민주주의 전당 설립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한국민주주의 전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선 공약인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을 위해 반드시 광주에 설립돼야 한다”면서 “특히 광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

도소는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주·인권 투사가 투옥됐던 역사적인 장소로 한국민주주의 전당 건립지도로 최적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광주와 서울, 마산 가운데 한 곳으로 정해질 것이며,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기자lucky@kwangju.co.kr

## 조건 없는 남북대화와 6.15민족공동행사 합의를 촉구한다!



“조건 없는 남북대화 추진을”

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회원들이 12일 오후 광주 YMCA 백제실에서 6·15 민족공동행사 합의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 적극 추진과 개성 6·15 민족공동행사 합의를 조건 없이 촉구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 남북 냉각국면 속 돌파구 찾기 주력

정부, 추가조치 없이 北 대화재개 기대

남북당국회담 무산 이후 남북 양측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면서도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일단 남북간 냉각국면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북한은 11일 저녁 대표단 파견 보류를 남측에 통보한데 이어 12일에는 판문점 연락관 채널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 3월 11일 북한의 일방적인 단절 통보로 끊겼던 남북 연락채널이 당국회담을 계기로 3개월 가까이만 인 지난 7일 재개된 이후 닷새만에

다시 끊긴 셈이다.

이러한 가시적 행동에 이어 북한이 앞으로 회담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며 남측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회담 무산이 북측이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을 기부해 생겨난 일이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측이 먼저 풀어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반면 북한이 남북대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쉽게 식지는 않을 것이어서 기대해볼 만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당국회담 장소로 기회해온 판문점을 실무접촉 장소로 수용했고, 회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면서 대남

노력도 이어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 무산이 북측이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실세 중 한 명인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수행인원에 포함시켜 남측과 대화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북측이 현재의 국면을 우회하는 회담 제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북측이 먼저 풀어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양부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장관급이라는 고위회담이 수석대표격의 문제로 무산된 만큼 북한이 실무회담으로 방향을 선포할 수 있다”며 “해당분야 실무자들이 나오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제의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려는 북한의

/연합뉴스

## 신문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접 정보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신문협회는 교문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종재기관이 언론에 정보보도를 강제함으로써 현법상 과잉지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명백한 오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

람이 언론중재위에 오보 확인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가 3일 이내에 오보 여부를 판단해 그 다음날 해당 언론사에 정보보도를 강제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가 7일 이내 정보보도문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해야 할 언론중재위가 분쟁의 당사자

가 되어 언론을 상대로 정보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언론중재위의 설립취지에 배치될 뿐 아니라, 공정한 변론의 기회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보도문을 작성해 언론에 제재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전세임대 100세대 공급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임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시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모집기간은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주택으로 100세대에게 기구당 최대 52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 공고문 또는 전화 062-600-6725~6.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려본다. 또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등 지역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윤장관은 14일 조선대 해양생물 연구센터가 주최하는 ‘해조류사업 미래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한 뒤 완도해조류박람회 관계자들로부터 견의사항을 청취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유정복·윤진숙 장관

### 광주·전남 잇단 방문



유정복 장관과 윤진숙 장관은 14일 광주·전남 민생탐방에 나서 지역 마을기업과 정보화마을을 방문하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과 F1경기장 등을 둘러보았다.

## 박준영 전남지사 투자 유치 방중

박준영 전남지사가 오는 17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외자 유치에 나선다.

이번 방문에는 박 지사와 도의원, 실무진 등 모두 8명이 동행해 산동성과 베이징 등지에서 협력 기업인들을 만나 J프로젝트와

한편 관심을 모았던 박 지사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잡혀 있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삼회공인중개사

### 모든부동산 급매매

### 급매처분상담 경매 공매 압류 미준공건물

###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등구 불로동 삼회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매매 전문

★북구 전대 상대·농대 1동, 신축 4층, 룸14평/주택있음  
월수익 500만, 매가 5억 9천만(벽돌시공, 대리석시공)  
★북구 전대 정문 1동, 신축 4층, 룸 16평(주택 40평)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4천만(벽돌시공, 대리석시공)  
★북구 전대 정문 1동, 신축 4층, 룸 21개(주택전환)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8천만(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서구 쌍촌동 운천역 2동, 신축 3층, 룸 8개(주택있음)  
월수익 280만, 매가 5억 2천(보2천, 용1억 2천)  
★서구 쌍촌동 신축 4층, 월·투룸 14개(주택있음) 매가 6억 9천만  
★북구 삼각동 신축 4층, 월·투룸 11개(주택있음) 코너, 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보 2500만, 용1억 2천) 매가 5억 5천만

☆상가 일대 1층, 수원지구, 대량 5차 후문 59㎡  
(보3천, 월130만) 모임업종가능  
☆상가 일대 3층, 수원지구, 모아힐가APT 150㎡  
(보 1천, 월 90만) 즉시입주, 시비없음  
☆상가 일대 1층, 수원지구, 러더마트, 영화관 300세대 대방 5차 APT후문 59㎡ 매가 3억 6천, 일대중(보 3천, 월 150만)  
☆상가 매매 1층, 수원지구 신현운행 후 300세대 모아힐가 APT 후문 3층 280㎡ 매가 3억 2천(보 2천만, 월 200만, 용 2억 7천만) 희망가 3억 3천  
☆상가 매매 1층 4칸: 수원지구 대방 1차 APT정은 대지 304㎡ 매가 6억 3천(보 2천만, 월 360만, 용 2억 7천만)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대방베르힐 대지 304㎡ 매가 7억(보 1억 3천만, 용 4억)

#### 독서실 급 입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아힐가APT 일 2층, 총 91석  
신축,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 5천만, 월 250만, 시비포함있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동(국민은행, LG전자옆)

###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총, 특령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리브코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치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케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제어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 속 전원주택지  
지선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당 35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 공장·창고·전시장 등

마월동 서광동의 인근 2차순환도로 점 자연녹지 전 1,620㎡(493평) 매매가 대지 200만원 조성 개지동등차관시설, 전시장, 창고 등 투자적합

#### 저렴한 전시판매장

주월동 상가 광동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대지 512㎡ 건물600㎡ 매매가 1억4천원(기구, 전자, 자동차, 이웃동, 등) 전시판매장 최적

####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충공인)

011-642-7777